

# 온라인 민간기록 수장고 '본격화'

### 익산시, '민간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착수 보고회 개최

익산시가 주민들의 지역 내 일상생활과 세대 간 역사를 담은 도내 최초 민간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본격 구축한다.

시스템이 개통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익산 자료를 쉽게 접하고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주제·시기별 범주화 및 소장기록물 컬렉션 온라인 전시까지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익산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가 시청 상황실에서 민간기록관리위원회 문이화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착수보고회는 사업 추진 목표와 수행 계획 발표 및 민간기록관리위원회 및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등으로 이뤄졌다.

아카이브 서비스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주민참여형 우리동네 기록화 아카이브 서비스 구현 등이다.

익산 관련 기록물의 디지털화로 도시의 역사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사라지거나 소실될 우려가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있는 익산의 기록을 영구 보존하여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익산의 정체성·역사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시는 2021년부터 민간기록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수집·기증된 민간기록물을 비롯하여 문화도시, 도시재생, 농촌활력 등 분야에서 생산·수집된 약 8천여건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통합 구축하게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청년시청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톡톡히 하며 벤치마킹 선진지로 떠오르고 있다.

## 청년정책 선진지로 각광

###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사무처장 등 익산청년시청 방문

익산청년시청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톡톡히 하며 벤치마킹 선진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충청남도 서천군청에서 대한민국 1호 익산청년시청 운영 현황과 시설을 살펴보고 우수 청년정책 사례를 배우기 위해 청년시청을 방문했다.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사무처장을 필두로 기획감사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주무관 등 10명의 인원이 증별로 시설을 견학하고, 청년시청 관계자와 티타임을 가지며 익산시 우수 청년정책 사례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2월에 개칭한 익산 청년시청은 청년 소통창구·정책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는 취업부터 창업, 주거 문제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청년들의 갈증 해소 역할을

하고 있어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총 4층 규모인 청년시청은 청년들의 공급증 해소와 각종 업무처리가 가능한 청년민원실과 북카페, 청년 교육 시설을 살펴보고 우수 청년정책 사례를 배우기 위해 청년시청을 방문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전국 최초 청년시청을 방문해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시설 및 맞춤형 청년 종합 행정서비스 정책이 잘 갖춰진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년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 수요에 맞는 정책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신성장 이끌 내년 국가예산 신규사업발굴 '박차'

### 익산시, 2024 국비활동 시작...총61건 1조3000여억원 규모 사업 타당성·예산 확보 방안 등 논의

익산시가 미래 성장 이끌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비 확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일 전대식 부시장 주재로 사업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총61건에 총사업비 1조 3,508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향후 국가예산 확보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신규사업은 지난해 9월 시작, 이달까지 3차에 걸쳐 미래 성장 동력 마련에 필요한 사업위주로 채택됐다.

시는 그간 국제철도·녹색정원·역사문화·바이오산업·세계식품 도시 등 익산 비전 실현 사업, 혁신성장, R&D 등 미래 성장동력 사업과 새정부 12대 국정과제 대응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신규사업을 발굴해왔다.

발굴된 주요 사업으로는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식품기업 전문교육센터 구축, △연화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등이다.

시는 발굴된 사업에 대해 전문가·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정책 선점 및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문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추진

군산시는 지난 3일 폭우 시 침수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문화동 일원에 대해 획기적인 침수 해소를 위해 국가 공모사업 응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동 삼성아파트 주변은 평지 지형으로 우수관로 통수능력 부족 및 만조 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다. 집중호우 시마다

아파트와 주변상가 등 지역 주민의 피해와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침수피해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시행에 △우수관로 정비, △고지 배수로 신설 △펌프장 증설 등의 총사업비 486억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신규사업 신청은 2024년 사업을 착공해 20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시 반복적으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문화동 삼성아파트 주민과 인근 상가의 피해가 완전히 해소되도록 신규사업 선정에 모든 행정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신역세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군산시는 3일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수요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2023년에 신역세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는 군산역 앞에 위치한 내흥동 1044번지로 총사업비 32억원(도비 16억, 시비 16억)을 투입해, 면적 3,430㎡의 부지에 주차면 110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2월 토지보상 등을 준비하고 오는 5월경부터 착공을 시작해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쾌적한 주차환경 개선에 따른 불법주차 민원 해소와 불법주차로 인한 인근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감소효과와 더불어 군산역 앞 교통흐름 원활화 및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송경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추진

군산시는 지난 3일 경장동에 위치한 송경교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15억원의 예산을 투입,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할 83개 교량을 대상으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추진하는 '노후 교량 내진보강사업'을 지난 2017년 시작해 2022년 완료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도에 제안인원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요청해, 송경교 내진보강공사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확보된 예산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량 받침 교체 등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추진, 올해 6월까지 송경교 내진보강공사의 공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